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136 원죄와 구속사역의 의미.....	3
8445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5
8141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7
8463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게 고통을 당했다.....	9
7083 고난의 금요일.....	10
8201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2
5478 그리스도의 피. 죄짐.....	13
6531 지옥으로 내려간 일. 루시퍼의 저항.....	15
6233 고난과 죽음.....	16
8158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	17
7019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 드리진 것이다.....	19
703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20
6938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헛되게 드리진 것이 되지 않게 하라.....	21
8189 예수님의 승천.....	23
6579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24
6860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26
6951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셨다.....	27
703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 졌다.“.....	29
6985 예수의 영적인 사명.....	30
7250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32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34
7024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관점.....	35
7066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36
6958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38
7096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39
7055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41
696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당하는 위험.....	42

원죄와 구속사역의 의미.

B.D. No. 7136

1958년 6월 1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또 다시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너희 사람들과 저세상의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혼들에게 항상 또 다시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또는 너희가 아직 구속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에 관한 지식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언젠가 축복에 도달하기 원하면, 깨달음이 없이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친 인간 예수를 알지라도 너희가 인간 예수가 죄악 된 인류를 위해 실행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했다." 라고 말하면, 그러나 너희가 연관관계를 찾지 못하면, 너희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은 너희에게 단지 말 자체로 남는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왜 인류가 죄악 되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인 원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의 죄악이 원죄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는 크기면에서 사람들의 죄악성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죄값을 치루기 위해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에서 언젠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나 저세상에서 원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 원죄는 자신이 이미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온전한 가운데 있는 존재가 그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나를 능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신을 다스리게 만든 존재가 그러므로 그들의 빛과 능력의 총만함이 거만하게 만든 존재가 범했기 때문이다. 존재 자신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왜냐면 이 죄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영원에 영원의 기간이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죄를 통해 존재들이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빛과 능력을 잃었다. 그들은 동시에 자신을 반대로 바꾸었다. 그들은 모든 신적인 성품을 잃은 대신에 모든 악한 성품과 충동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성분이 전적으로 굳어져서 그들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내 대적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이런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을 형체 안으로 파문했다. 다시 말해 나는 존재를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로 분해하여 이 입자들로 셀 수 없이 많은 창조의 작품을 생성시켰다.

창조의 작품들은 내 사랑과 권세와 지혜가 단지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이다. 왜냐면 존재는 축복 되게 정함을 받았고 이 축복은 단지 나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은 실제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속죄하는 역사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의무의 단계에서 의지가 묵임을 받은 가운데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가 언젠가 다시 자유의지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는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러나 이런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다. 존재는 이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임을 알아야만 한다. 존재는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을 통해 가능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육체의 죽음 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

의 실제 고향은 빛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야만 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아직 깊은 곳에서 고통 당하는 혼들에게 다가간다.

저세상에 있는 혼들도 내 구속사역을 알게 된다. 혼들은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때 거부했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을 통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높은 온전한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구속사역의 이런 큰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이름을 단지 높은 도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땅에 거한 목적은 큰 의미가 있는 사명이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선명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이 사명을 헤아려 봐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지는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게 될지는 너희의 깨달음과 너희의 선한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445

1963년 3월 22일

한 때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구속을 위해 나로부터 타락했던 측량할 수 없는 원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가장 큰 비밀은 사람들이 모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에 관한 진리를 체험하려는 소원이 없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비밀로 남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원죄의 결과로써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거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원죄 너희가 빛이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단지 영원한 진리 자신으로부터 너희에게 이에 관한 순수한 진리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진리를 영접할 지를 결정한다. 너희는 너희가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를 위한 단지 한 가지의 선행조건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지혜의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가 하나님의 일 부분으로 주어져 있다.

이 불씨는 영원한 사랑인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너희 스스로 자유의지로 너희 안의 불씨를 불지 피운다면, 불씨는 원래의 불을 향해 추구한다. 원래의 불로부터 다시 깊은 지혜의 형태의 빛이 발산 된다. 너희는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빛의 깨달음이 너희를 깨우쳐 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은 올바르게 되고 너희는 진리 안에서 거할 것이다.

이런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어서 너희가 이 땅의 너희의 과제를 깨닫고 이 과제를 성취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원죄와 영원한 내 구원계획에 관해 알아야 한다. 너

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되는 것에 관해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언젠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칠 수 없다는 것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의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알려 주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그렇지라도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수의 구속사역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로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했다. 왜냐면 그는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했기 때문이고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인간으로써 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단지 내 성품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랑이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설명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성품을 인격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전적인 영이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되었다. 구속사역이 완성 된 이후에 비로소 예수와 나와의 남김 없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할 때 가끔 아버지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것으로 말했다. 그렇지라도 항상 또 다시 연합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자신을 십자가 아래 두는 구속받기를 갈망하는 그러므로 자유의지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그에게 죄짐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구속사역에 관한 선명한 깨달음을 밝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두운 영의 상태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공훈의 역사인 구속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알고 있고 그의 모든 신적인 사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는 죄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어두운 영으로 있고 종종 그들에게 빛이 주어지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은 빛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온 빛을 더 이상 꺼 버릴 수 없다. 왜냐면 나는 항상 또 다시 자신 안의 영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해서 이제 영원한 그의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의지가 이렇게 할 시간이 왔다고 여기면, 이런 빛은 언젠가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어두움을 전적으로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은 한 구원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구원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 시대에서는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어두움을 이 세상에 주는 자가 오랜 기간 동안 파문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죄가 그들로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진실로 사람들에게 이를 전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영접하고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할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해결해줄 것인 유일한 분에게 그들의 죄짐을 드릴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큰 죄를 속죄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때 그를 떠나 타락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랑 자신이 이 제사를 드렸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속했고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다시 열어 주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B.D. No. 8141

1962년 4월 3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영원한 말씀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내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원한 말씀과 전혀 어떠한 연결도 없었던 사람들과 내가 연결을 이루려고 한 일은 아주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다.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지게 만든 잘못이 그들 자신에게 있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와 이 큰 간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원래 초기에 내가 나로부터 생명으로 생성된 모든 피조물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말씀을 듣는 일이 그들에게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자신이 이 큰 간격을 극복했고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고 이제 내 피조물들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빛과 축복의 나라에 있는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다리를 놓기위해 그들과 연결을 이루기를 구했다.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나 한때 나로부터 자유로운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온 그들을 강요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높은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그들이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에 모든 자유의 의지로 들어서야 한다. 나는 이를 단지 내 음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울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입었고 나는 인간의 겉형체 예수를 입었고 내가 이제 사람 안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은 내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내 의지를 알려 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는 의지가 진지하면, 모든 사람 스스로에게 듣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했다. 그러나 내 영을 부여하는 일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고 사람 스스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내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은 먼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만 하고 이전에 한때 나로부터 타락했던 죄짐을 해결받아야만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인류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스스로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불쌍한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런 큰 간격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만 하고 나 자신이 의지를 그들에게 전해 줘야만 한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한 사람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단지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 모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을 가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 된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에게 내 뜻을 알려 주기 위해 그들 스스로 살아야 할 삶을 내가 그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사랑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4월 3일) 이 가운데 그들은 무능했고 무능하게 머물러서 어떤 성장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힘으로 역사한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단지 사랑의 힘만이 줄 수 있는 다른 기적들을 행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의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왜냐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왜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위험 가운데 있는지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축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축복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받아야만 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원래의 상태일 때는 말씀이 모든 존재에게 들렸고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었다. 존재들이 이런 축복을 스스로 버렸다. 왜냐면 그들의 자유의지로 나를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말씀은 나로부터 직접 온 사랑의 비추임이고 존재가 이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아주 큰 위험이 내 사랑과 공휴이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대면하게 했다.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고 내 말을 영접하고 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단지 사람을 보고 내 말을 단지 사람의 말로 평가를 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항상 또 다시 설명해줄 수 있었다. 나는 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며 나 자신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는 항상 내 끝없는 사랑과 공휴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의 심장을 비추어 준다. 이런 심장은 내 사랑을 자원해 내 말씀을 받아드리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고 큰 은혜의 선물에 대해 나에게 감사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 자신과 긴밀한 연결에 이르게 되고 이 땅

의 자신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인 나와 전적인 연합을 이룰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게 고통을 당했다.

B.D. No. 8463

1963년 4월 10일

너희는 항상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사탄의 사슬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너희를 돕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졌고 이 죄에 대한 속죄로써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고통을 견디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의 총만한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그의 희생 제사의 크기를 그의 고난의 크기를 소개해 줄지라도 이런 고난을 그대로 느껴보는 일은 너희에게 불가능 하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로 하여금 그의 구속사역을 하게 만든 그의 아주 큰 사랑을 측량할 수 있기 위해 이 고난을 자주 생각 해야 한다.

그의 혼은 순수하고 흠이 없었다. 혼은 최고로 높은 빛의 영역에서 어둡고 죄악 된 세상으로 임했다. 혼은 한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죄악 된 인류에게 임했다. 혼은 그들을 계속하여 사랑이 없게 만드는 그들이 원죄의 짐으로 인해 전적으로 연약해 저항을 할 수 없었던 대적자의 영향 아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지은 죄악 된 인류에게 임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혼의 원수를 꿰뚫어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깊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다. 예수는 이런 인류를 긍휼히 여겼다.

이런 인류는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남았을 타락한 자신의 형제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구속역사에 제공했다. 이 구속역사의 크기는 너희 사람들이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그의 모든 능력으로 구속사역을 막기를 원하는 대적자의 추종자였던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움의 권세자의 영역에서 그의 종들과 돕는 자를 돕는 자들에게 맡겨져서 혼이 견뎌야만 했던 것은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이 혼은 신적인 빛이 총만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역인 어두운 지옥으로 내려왔고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죄악 된 것들과 어두운 것들이 혼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모든 악한 영들이 혼에게 달라붙어서 끝없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저항을 했다. 혼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 왜냐면 예수의 혼은 사랑으로 총만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그의 구속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능력이었다. 예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불행한 상태를 보았다. 그는 그들이 무기력함과 그들의 눈먼 상태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두고 그들이 불행에 빠지게 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와 싸웠다. 예수는 대적자의 미움과 그의 악한 역사를 자신의 사랑으로 대응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했다 사랑은 대적자를 극복했다. 사랑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사랑이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는 자로부터 사람들을 구매해 자유롭게 했다. (1963년 4월 10일) 이 가격은 아주 높았다. 그는 사람들의 죄짐을 위해 마지막까지 드렸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렸다.

그는 대적자에게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함을 사랑이 죽음을 통해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 원하면, 사랑이 포로들을 그들의 감옥의 최고의 책임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면, 죽음 앞에서도 놀라지 않음을 증명해주었다.

인간 예수에게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그로 하여금 구속사역 피하게 만들 정도로 크지 않았다. 왜냐면 최악 된 인류를 향한 그의 긍휼이 아주 깊어서 그는 어떤 것도 놀라며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복종하며 자원해 죽음을 맞이했고 이 전의 초인간적인 고난을 견디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생각하면, 너희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에게 향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가 자신의 죄를 속죄한 사람들에게 속하기 위해 십자가 아래로 급히 달려가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그의 사랑의 권세로 충만해져서 가장 깊은 심장으로부터 이 사랑에 응답해야 하고 너희 자신이 그와 하나가 되어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로 남기 위해 너희는 전적으로 모두 그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너희가 아무리 자주 그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충분 할 수 없다. 그가 견디었던 모든 고난이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너희 스스로 견디어 야만 했다는 생각이 그가 너희를 구속했다는 생각이 너희에게 가득 차게 되면, 너희는 항상 그에게 가까이 다가 갈 것이다.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랑이 단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 사랑이 인간 예수에게 충만하게 비추고 그에게 긍휼의 역사를 완성하게 대적자에게 승리하게 능력을 준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대적자 스스로도 패배해야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적자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만 한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B.D. No. 7083

1958년 4월 4일

내가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너희를 향한 내 끝없는 사랑을 항상 생각하라. 이웃의 가장 큰 영적인 위협을 알았던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견뎠던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큰 죄짐과 도움이 없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이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사랑의 삶의 결과였고 그러므로 그는 인류를 긍휼히 여겼고 돕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결과로 나 자신이 그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그가 나 자신의 곁형체가 되어 나를 섬겼고 나 자신이 큰 죄짐을 사하는 구속역사를 그 안에서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이 땅의 삶이 이런 사명을 함당하게 성취시켰고 그의 이 땅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길이었고 위험과 고난이 먼저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이런 위험과 고난은 죄악 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자체가 그의 혼에게 준 것이었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어두움의 나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을 담고 있는 이 땅의 형체는 먼저 고난과 위험을 통해 정화가 돼야만 했고 혼에게 붙어있는 정욕과 욕망에 대항해 계속해서 싸우는 일을 통해 정화가 돼야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임하기에 함당한 그릇이 되었고 내가 그 안에 전적으로 모두 거했다. 즉 내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유의 사명을 행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진리를 선포했고 사랑의 복음을 설교했고 그들이 그들의 죽음 후에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그들이 가야만 하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의 역사로써 그의 가장 혹독한 고난의 길인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의 길을 마쳤다.

한 사람이 실제 이런 사명을 성취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사람 안에 거했고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능력이 있었고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사랑이 단지 그가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었을 지라도 그러나 이 부름은 단지 그 안의 신성이 그에게 행하게 강요하지 않고 인간 예수가 전적인 자유의지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증명하고 자신 안의 사랑이 그가 실행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사랑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의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나 자신이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사랑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혼이 견뎌야만 했고 동시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했다.

그의 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왔고 이 땅의 어두움이 혼에게 이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크게 기뻐한 내 아들이었다. 그는 모든 생각과 모든 그의 사랑으로 나에게 향했고 그는 죄악 된 인류 가운데 살았다. 그의 혼은 쉬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구했다. 그의 사랑이 내가 그 안에 제한이 없이 부여주게 강요했다. 이로써 인간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또

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전적으로 질서에 합당하게 이뤄졌다. 왜냐면 나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것과 연결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전적으로 사랑이 아닌 인간의 곁형제를 거하는 장소로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숙하지 못한 입자는 인간 예수의 고난의 길을 통해 영화되었고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해 죄짐을 해결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사랑으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나는 그를 영원히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곁형체로 택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만든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를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신성이 되면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항상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도운 내 끝없는 사랑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빛에 나라에 들어가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깨달음의 빛이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지면, 너희는 비로소 이런 공훈의 역사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신도 이 역사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는 이 역사를 현재의 일로 체험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비로소 한때 나를 떠난 큰 죄로 인해 길을 잃었던 사랑의 자녀들을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 내 끝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B.D. No. 8201

1962년 6월 27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했다. 모든 고난을 묘사하는 일은 단지 내가 고통 당한 것에 비하면 연약한 비유일 뿐이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의 모든 단계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에게 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위로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마지막 시간을 단지 인간으로써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마지막까지 나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 의지 의해 더 이상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능력이 나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또는 없애기 위해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이 요구되는 구속사역이 전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의지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왜냐면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특별히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내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과 다시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을 최고로 높은 정도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간절한 소원은 증가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의 역사와 그의 사랑의 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최악 된 인류를 위한 공훈의 사역을 끝까지 실행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버지 대신에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

성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겨 받아 마지막까지 견디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려고 자주 시도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빛과 축복의 나라인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를 절대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단지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인간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는 인간으로써 고난을 당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한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신성과 하나가 되었다. 왜냐면 사랑이 마지막까지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고 있나이다."

사랑이 조용히 처신하면,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기 위해 그의 육체가 무덤에 놓일 수 있게 하는 일이 구속사역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들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나와의 연결을 깨달았을 것이고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강제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너희의 영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로 만들 때 이것이 너희 안에서 밝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이제 항상 너희 혼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 주려고 시도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고 이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내 사랑이 너희 사람들과 너희 죄짐을 위해 이 땅에 임했고 내 큰 사랑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너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너희의 큰 죄짐을 속죄해주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너희의 큰 죄짐이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영원히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죄짐.

B.D. No. 5478

1952년 9월 2일

이 땅의 내 자녀들아, 나는 내 피를 흘렸고, 너희를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갔다. 왜냐면 너희가 혼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너희가 벗어나도록 내가 돕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희생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이 희생 제사는 너희를 위해 드리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간청했 일과 이를 위해 내가 희생한 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너희가 처한 상태에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 시대의 이 땅이 사람들이 단지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음을 알았고, 내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역사에 포함시켰고,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매했고, 그들은 이제 이 땅의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희생의 죽음은 가장 큰 공훈의 역사였고, 나는 전적인 의식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고통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을 공훈히 여겼고,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이 내가 인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나는 실제 이런 내 구속역사가 내 성품이 완전히 신적이게 되는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영광을 목표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해 고통을 받고 축복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사랑이 아주 권세있게 나를 충만하게 채워, 내가 사랑으로부터 공훈의 역사를 실행할 힘을 얻었고, 인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죽었다. 나는 불행한 형제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쳤다. 이런 형제들은 한때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에게 정해진 길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축복을 알았고, 축복되지 못한 타락한 존재를 공훈히 여겼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를 하나님께 되돌려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컸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에 대한 내 사랑도 아주 컸다. 유일하게 이런 사랑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 희생을 받아들였고, 내 사랑은 타락한 존재들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런 죄짐은 사랑없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이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속죄를 받아들였다.

나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내 피를 흘렸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일을 속죄했고, 너희 죄를 내가 짊어지고 속죄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내 죽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은혜의 역사가 너희를 위해 드러졌기를 원해야만 하고, 나와 내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자원하여 속하면서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인정과 너희의 의지가 없다면, 너희는 죄짐을 지고 있고, 너희를 타락하게 만든 자의 사슬에 갇혀 있게 된다.

내가 실제 너희 모두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의지가 비로소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너희가 자유의지로 저지른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뒤야만 하고, 나를 인정해야만 하고, 나를 불러야만 한다. 너희는 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내 피로 해결하기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고 영원한 축복의 문으로 아직 들어가 지 못한 존재들을 구원한 일은 맞다. 왜냐면 이 문이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열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무수한 혼들이 그들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렸고 나는 그들에게 인간 예수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내 고난과 죽음을 눈 앞에 보여주었다. 왜냐면 그들도 자유의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나를 깨달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의해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거부했고 그들은 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내 대적자의 영향력이 아주 강해 그들은 나를 단지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반역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고 이런 모든 혼들에게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단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완성된 구속 역사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혼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 대적자는 처음으로 내 구속역사의 결과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고백한 혼들과 내가 그들에게 열어준 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했던 혼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런 혼들은 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났고 사슬을 풀었다. 왜냐면 그런 혼들이 내게서 힘을 얻었고 나 자신이 그들의 사슬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내 대적자는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더욱 격노했고 어둠에 대하는 빛의 싸움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시작이 되었고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격노한다.

나는 내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갔다.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대적자의 권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로서 나 자신에게 대항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를 상대로 그가 묶고 있던 모든 혼들을 위해 싸웠고 그는 큰 부분의 자신의 추종자들을 잃게 되었다. 나는 모든 혼들을 위해 죽었고 모두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빼앗기는 일을 보고 내가 단지 사랑이 얻게 해준 그를 이긴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그도 사랑에 굴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권세와 그의 소유물이 여전히 아주 커서 내 사랑의 힘에 저항했고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권세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고 그가 인간 예수의 사랑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한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의 미움은 더욱 커졌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이제 옹만한 반대자가 나타났고 그가 그의 사랑으로 대적자의 추종자들을 대적자에게서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는 여기에서 아직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보았고 그는 이 땅이나 또는 영의 나라에서 자신의 희생자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고 그를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는 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부름을 따르려는 혼들을 결코 강제로 붙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죽음도 그의 저항을 꺾지 못했고 그의 증오와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그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의 본성은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없고 그는 그에게 남겨진 힘을 항상 부정적인 일을 위해 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힘이 그의 역사를 점점 더 악화시켜야만 하고 사랑이 사랑을 위해 얻어야만 한다. 사랑이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를 끌어당겨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를 제공했고 사랑이 존재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생명이고 존재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은 자는 패배했다.

아멘

고난과 죽음.

B.D. No. 6233

1955년 4월 9일

십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나는 잔을 마지막까지 마셔야만 했다. 너희를 **십**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사역이 너희를 위해 이뤄지게 하려면,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만 했다. 너희의 불쌍한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단지 내가 이런 희생을 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내 심장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너희를 기다리는 끔찍한 운명을 너희가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끔찍한 운명을 알고 있었고 빛의 나라의 축복과 어두움의 나라의 고난과 고통이 내 눈 앞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었고 내 사랑이 타락한 형제인 너희에게 향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탈출구를 찾았고 나 자신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갔다. 나에게 이 땅에서 행해진 일은 전체의 죄짐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단지 비유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주 큰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과 고통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를 땅에 쓰러지게 했던 짐을 짊어졌다.

내 몸이 단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나 자신이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죄짐을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피할 수 없게 해결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너희를 위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나는 고통을 겪으며 싸웠고 진실로 피를 흘렸고 지옥의 모든 깊이를 보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내 혼을 흔들었고 나는 너희 자신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견뎌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 버틸 힘을 나에게 주었다.

내 고난과 비교할 만한 고난은 없고 아무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로 나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내가 단지 이 방법으로만 너희가 사탄의 사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고 이 짐을 짊어지고 의식적으로 십자가가 최종적인 목표인 길을 갔다. 그러나 나

는 이런 지식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다. 나는 혼들에게 부과 된 불행을 보았고 내가 실패하고 그들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이런 지식이 내 의지를 강하게 했고 이로써 내가 저항하지 않고 이 땅의 내 삶의 목적이자 목표인 내 운명에 내 자신을 맡겼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투쟁해야만 했고 마지막까지 짐이 아주 심하게 짓눌러 내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강했다. 내가 말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되었다. 내가 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게 했고 이로써 마침내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었다: "다 이루었다." 내 혼은 내 혼이 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죽음을 통해 나를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

B.D. No. 8158

1962년 4월 23일

내 육체는 삼일 만에 부활했다. 사람들이 이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과정이 믿을 수 없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항상 또 다시 내 영을 통해 인류에게 내가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전파해야 한다. 왜냐면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내 대적자가 자신의 깊은 곳으로 타락을 통해 세상에 가져온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내 부활을 통해 영화가 된 존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동시에 증명했다.

영화되는 일은 내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산 것처럼 사랑의 삶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원래의 성품으로 다시 변화되는 일이다. 이 일은 모든 죽음의 상태나 모든 무기력함이나 무능력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변화를 완성시켰다면, 혼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죽음은 극복되었다. 왜냐면 이를 통해 원죄가 사함을 받고 존재가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자신의 원래의 성품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육체도 영화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원했다. 이로써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이 땅에 영화 시키는 일을 이룰 수 있으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로써 사랑의 삶을 통해 아직 내 육체의 성숙하지 못한 모든 입자들을 영화시켰다. 나는 입자들을 성숙하게 했다. 사랑이 내 안의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부드럽게 하고 내 혼과 하나가 되게 했다. 이로써 육체와 혼이 내 안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에게 속할 수 있게 되어 이로써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전적으로 영화 된 존재는 더 이상 죽음에 패배를 당할 수 없다. 왜냐면 죽음은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영화 된 존재는 빛과 능력이 충만하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다. 내 부활의 과정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은 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내 육체를 숨긴 것으로 믿게 만들려고 한 것은 이해할만 하

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증명할 수 없다. 사랑을 통해 또는 내 눈앞에서 공의롭게 살려는 그들의 선한 의지를 통해 나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지 믿는 사람들이 내 부활을 진리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왜냐면 이로써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 약속이 단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내 부활은 내가 내 대적자에게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내 대적자에게는 아주 큰 패배이다. 내 부활은 나 자신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즉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활용하려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대적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묶어둘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내 대적자에게는 아주 큰 패배이다.

그러므로 내 부활은 내 대적자에게 패배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려고 그들에게 내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럴지라도 그는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내가 약속한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부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추종자는 계속하여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가 영원히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는 의지를 가진 그러므로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 아래로 도피하는 존재에게 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는 죽음을 극복한 것이다. 그가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확실하다. (1962년 4월 23일)

내 제자들도 비록 내가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했을 지라도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 갔을 때 그들은 나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은 전적인 확신 가운데 나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십자가의 죽음과 내 부활을 거론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지식을 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지 그들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나에게 가져올 때 그들이 구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이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므로 내가 구속한 자로 내 영을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없었다면, 이런 내 가장 큰 공훈의 역사도 곧 잊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내 영은 그들 내면으로부터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알려 주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전래되어진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서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만이 활용이 된 곳에서 잘못 된 관점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나 이 관점이 전승된 것이 되어 계속 전달되었다. 이로써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내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또 다시 순수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십자가의 내 고난과 죽음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 부활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려면 이런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 영이 항상 또 다시 순수한 진리를 받기 위해 자신을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올바른 설명이 주어져서 너희 사람들이 내 부활을 그리고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만약에 너희가 내 편에 선다면, 너희 스스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기를 원하면, 너희가 나를 그리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을 한 내 구속사역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다면, 너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너희들도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면, 너희를 내가 구속하게 했으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 드러진 것이다.

B.D. No. 7019

1958년 1월 17일

나는 모든 때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이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언젠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때가 온다. 이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보장되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랐기 때문에 내 대적자가 그에게 부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사슬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면 되는 이런 헌신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다시 깨닫는 아주 짧은 기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 짧은 시간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존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받고 이제 새롭게 결정해야만 한다.

그는 도움이 없이는 이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가 아직 그를 묶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구속사역을 통해 이런 결정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려고 저항하기 위해 단지 사람들을 위해 얻은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이 영적인 존재들 성장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인류에게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 드러졌기 때문이다. 희생제사는 절대로 과거에만 속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현재에만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래의 구속사역도 단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혼들이 성공할 것이다.

저세상의 나라에서 예수 안의 구속하는 능력을 아직 활용할 수 있다. 저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즉 예수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 것이 비로소 존재가 다시 축복되기 원하면, 언젠가 일어나야만 하는 내 대적자로부터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땅의 인간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이 번의 이 땅의 시대가 아주 축복된 시대이다. 이 시대 동안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귀환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강요받지 않고 절대로 강요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물들이 생성돼야만 하고 또는 모두가 구속사역의 증거 앞에 서게 될 끝 없이 많은 창조물들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에 관한 지식을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의 보물을 전할 것이다. 깨어난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내 영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깨어난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와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된 역사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된 것을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식은 이 땅의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해질 것이고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긍휼의 역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속을 받게 하지 않은 한때 타락했던 어떤 존재도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B.D. No. 7034

1958년 2월 5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영원히 자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 내 대적자에 의해 묶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간으로서 너희는 대적자의 사슬을 전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다른 존재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유와 빛과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너희의 원래 초기 상태이다. 너희는 한때 자유했고 빛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었고 제한이 없는 축복 속에 거했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에게 옛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 너희가 이에 관해 알게 되면, 너희는 이를 믿거나 또는 믿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이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유가 없는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그를 믿는 일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빛과 능력 가운데 자유한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갈망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인간으로 이 땅의 존재가 축복되지 못함을 실제 깨닫고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자신에게 부족함을 실제 깨닫고 그에게 깨달음과 최고의 지혜와 제한이 없는 지식이 부족함을 실제 깨닫는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신적인 아버지의 영과 떨어진 가운데 살면, 그는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다. 이런 격리는 존재가 한때 스스로 나를 대적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로 나를 떠난 내 대적자와 연합함으로 생긴 일이다. 내 대적자는 이제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존재를 가두고 있다. 존재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격리를 벗어나기 위해 존재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단 하내 유일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자유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

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자에 대한 승리자로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 자신이 세상의 옷을 입은 즉 단지 너희와 같이 연약하고 대적자에 대항해 승리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의 형체 안에서 가능한 내 대적자와의 싸움 싸우기 위해 거한 이 땅의 그릇으로 그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 능력은 바로 사랑이고 내 원래의 성분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사랑에 의해 나 자신에 의해 완성되었다. 인간 예수가 그를 충만하게 채운 능력을 나로부터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인간 예수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능력을 주기를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다시 너희가 한때 거부했던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해주기를 예수 안의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구속사역을 통해 비로소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났던 거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큰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를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진리에 합당한 해명이 주어지고 자신이 이 해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원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의 말을 심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묶인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길 계속하여 갈망해야 한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자유하지 못함을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무제한으로 행복하지 않음을 모든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헛되게 드러진 것이 되지 않게 하라.

B.D. No. 6938

1957년 10월 7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희 사람들에게 헛되게 될 수 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영향을 받지 못한 너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를 단지 인간 예수로 깨닫고 그러나 그의 신적인 영적인 사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써 구속사역의 완성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의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헛되게 드러진 제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구속사역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너희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에게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묶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과 능력을 가지고 자유를 기뻐할 수 없고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묶임을 받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자유가 없고 능력이 없고 빛이 없는 상태를 끌고다를 향한 길을 통하지 않는 다른 길을 통해 절대로 바꿀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유일하게 그 만이 너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축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하게 될지 정하는데 결정적이다.

너희는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주 축복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기간은 길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너희의 묶인 상태의 고통을 의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굳은 물질 안으로 묶임을 받고 이런 고통스러운 묶임을 받은 상태를 느껴야만 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으로써 소유했던 삶의 능력을 빼앗긴다.

그러나 너희에게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또는 너희가 극심한 어두움의 영접을 받지 않으면, 저세상에서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가능성이 아직 항상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너희 생각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분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눈앞에 볼 수 있게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그의 구속사역이 거론하게 돌볼 것이고 전적으로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적게 또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너희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전해지게 돌볼 것이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자신에게 전해진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에 대한 자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자세를 갖는지에 따라 끝없는 기간이나 또는 영원한 기간 동안을 정한다.

왜냐면 그가 실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아직 고통스러운 묶인 상태로 머물러야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나 그는 실제 영원히 자유롭고 빛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자신의 자유를 구매한 그에게 다시 그가 축복 되었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게 해준 공활히 여기는 사랑의 역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이 결정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준비한다. 그러나 내 사랑이 쉬지 않고 그를 도와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 내 사랑은 그에게 항상 또 다시 지식을 제공한다. 이로써 어떤 사람도 그가 구속받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내 사랑이 너희의 의지를 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선택했고 너희는 다시 자유의지로 축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기 위해 먼저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세상이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유가 없이 연약함 속에 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 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비로소 구속사역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너희가 자유롭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분을 고백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도 죽었기를 원하면, 너희는 진실로 묶인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빛과 능력 가운데 제한이 없이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

B.D. No. 8189

1962년 5월 31일

내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내 사명이 성취되었다. 나는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나는 부활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가는 내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났다.

나 자신이 빛과 능력으로 충만했다. 나는 이제 내가 나왔던, 빛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에 다시 가기 위해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육체는 용화되었기 때문이다. 내 육체는 영적인 옷이고 더 이상 자연의 법칙에 구속을 받지 않고 내 의지가 원하는 곳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영원한 신성이 자연의 법칙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원한 신성이 필요로 하는 영원한 신성을 자신 안에 영접할 수 있기 위해 높은 성장 정도를 소유해야만 하는 형체를 그에게 제공하기 위해 영원한 신성을 자신 안에 영접한 내 육체는 영원한 내 아버지 영처럼 형체에 묶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간을 채우는 인간 예수인 나 자신을 채우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사명은 끝나게 되었다. 하늘로 승천하는 일에 대해 증거를 남겨 두어야 했다. 왜냐면 이는 대관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에게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증명하는 증거였다. 왜냐면 내가 승천하였을 때 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영광으로 쌓여 있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진실로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하게 연합되었던,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를 이미 소유했던 제자들만 단지 나를 볼 수 있었다. 어떤 혼들은 이와 같은 상태로 이 땅으로부터 빛의 나라에 들어 간다. 이런 혼들은 영광과 빛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일이 가능하다. 왜냐면 그들의 성장 정도가 영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대면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원래의 요소인 동시에 빛과 능력인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는 모든 혼이 충분히 성장을 한 후에 이 땅의 삶을 떠나 저세상으로 갈 때에 입을 수 있는 너희의 영의 옷이다. 너희는 이를 믿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들 모두에게 언젠가는 그때까지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주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서 항상 내 의지에 따라 살면, 만약에 그의 삶이 자신의 성품을 내 원래의 성품과 같은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러므로 모든 빛남과 모든 영광으로

비추어지게 되고 같은 성장 정도에 도달했고 그리고 자신을 빛과 능력을 발산하는 존재이고 모든 영원까지 발산하는 존재로 남을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런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지 증거를 내가 주었다.

승천하는 일은 실제로 진실로 일어났다. 인간 예수는 빛나는 빛의 총명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 그의 혼이 나왔던 나라로 향하였을 때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에 대한 마지막 증거를 주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았다. 그러므로 승천은 내가 이 땅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제 다시 내 목표였고 영원히 너희의 목표이고 목표를 남을 빛과 영광의 나라로부터 내려왔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너희들도 빛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다시 내 빛과 내 능력을 모든 총만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한다. 부활해야 하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하늘로 승천해야 한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B.D. No. 6579

1956년 6월 25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 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권면해야 할 불가피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나와 가까운 연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때 나를 떠난 죄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고 이 죄가 그들을 내 대적자에게 묶이게 만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죄를 알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이 알려지면,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한 말을 깨달으면, 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받기 원했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설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더 이상 이 생각을 떠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단 한 가지의 길 만이 있다. 왜냐면 내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이는 내 끝이 없는 사랑도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하나님을 실제 인정하지만 그러나 단지 말씀이나 또는 표면적인 생각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한 생각이 느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그의 영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그의 영적인 관점을 날카롭게 해주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작은 불쾌감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1956년 6월 25일)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이웃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거했고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당한 인간 예수를 생각하게 그의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알고 나 자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영접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에게 개입하고 그의 저항은 항상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아직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가졌던 초기와는 다른 전혀 다른 빛으로 인간 예수가 그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르칠 수 없게 되면, 너희의 의지는 죽음의 시간에 아직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는 영의 나라에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그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하는 영역으로 영접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하지 않았고 그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의 나라에서 아직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인 구원자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영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를 거부했던 모든 존재들을 만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고 내가 구세주로서 나에게 향하는 모든 부름을 듣고 이제 부르는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내 신적인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혼이 단지 이 땅에서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나는 아직 깊은 곳에 있는 혼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빛의 나라의 문은 모든 혼에게 닫혀 있다. 그럴지라도 문을 열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고 인간 예수 안의 나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걸형체로서 나를 섬겼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이고 영으로써 모든 창조된 존재

들이 볼 수 없었던 내가 영의 나라의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ی 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이 걸형체를 유지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는 한 형체를 택했고 이 형체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거한 형체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대적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아직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B.D. No. 6860

1957년 6월 29일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내 대적자를 벗어날 수 없고 너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적자를 이겼고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고 그와 나는 하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진실로 도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일치시킬 수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에 아직 확신이 없고 너희가 가장 깊은 내면에서 믿지 않고 단지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없이 이 땅의 길을 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아직 지배하고 있고 너희 혼자서는 그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따랐던 자와 결별하고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따랐던 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도움을 나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일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아직 나를 외면하는 일을 의미하는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따랐던 자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로서 너희의 연약함은 고려가 된다.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비록 너희 자신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채운 속박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사랑과 긍휼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인간 예수 안에 나 자신이 육신을 입었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고통받는 상태를 긍휼히 여겼고 너희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 너희를 위해 자유와 축복을 의미하는 너희의 원래 상태에 들어갈 기회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으로서 너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동시에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내 대적자에게 속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소

원을 표현해야만 하고 너희가 나에게 향하기를 원해야만 하고 너희가 내가 그들의 혼을 너희의 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활용해야만 하고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불러야만 한다. 너희가 그를 믿고 그의 구속역사와 내가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을 믿는다면,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게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또한 더 이상 내가 없이는 이 땅의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너희가 또한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한번 진지하게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실제적인 과제를 질문해야 한다. 너희는 단지 이 땅의 너희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너희가 이런 의지를 갖는다면, 유일하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라.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너희가 그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너희의 부름은 들리지 않고 사라지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의 생각은 또한 곧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내적인 의지와 가장 긴밀한 갈망을 정할 수 없고 가장 내적인 의지와 가장 긴밀한 갈망은 자유하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경고하고 훈계할 수 있고 너희가 생각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내적 갈망을 따라 행해야만 하고 행하는 정도에 따라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의 성숙한 상태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셨다.

B.D. No. 6951

1957년 10월 21일

나는 큰 영적인 위험 때문에 이 땅에 임했다. 왜냐면 내가 내 대적자에 의해 묶임을 받고 그에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께 구세주를 보내주기를 구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된대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믿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들은 메시아를 가장 깊은 곤경과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그들의 구세주로 기대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임했다. 왜냐면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부름이 내 귀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 예수의 사명을 위한 때가 되었다.

나는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했고 나는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큰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구원을 주기 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미 영원한 기간 동안 그들을 사슬로 묶은 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로 향하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자극해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나를 따르는 무리는 크지 않았다. 사랑을 행한 결과로 그들은 나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큰 위험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적은 데 있고 사람들이 이미 대적자의 사슬에 전적으로 묶여 있는 데 있다. 대적자 자신에게 전혀 사랑이 없고 대적자는 나에게 대항한다. 나는 내 승리를 통해 대적자가 묶고 있는 혼들을 그로부터 빼앗기 위해 그에게 대항해 싸우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왜냐면 사랑이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무기였고 사랑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대적자에게 저항할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전적으로 대적자에게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사랑에 저항할 수 없다. 사랑은 대적자를 패배시키는 가장 유일한 무기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랑이 유일하게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연결시켰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원했으면, 연결이 이뤄져야만 했다. 내 말이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의 부족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새롭게 내 뜻을 알려 주고 그들에게 내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주기 위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그들에게 새롭게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줘야만 했다. 나는 이 전에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을 막는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다. 나는 이런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기 원했다. 내가 인간 예수의 형체 안에서 모든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인간 예수의 형체를 택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내 편에서야만 했다. 나는 자유의지로 원수에게 머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 향한 사람은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런 구속역사는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왜냐면 사람들의 의지가 강요받아서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의 구속역사를 인정하기 원하는지 또는 거부하기 원하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 예수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갔고 속죄를 받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의 큰 죄짐을 속죄해야 하는 큰 속죄의 제사를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깨달았고 내 안에서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항상 계속하여 예언한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위험이 아주 컸다. 그러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 왜냐면 내 사랑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드림으로써 죄짐을 사했다. 이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아직 활용하지 못한 그러므로 항상 원수의 사슬 아래 고통당하고 도움이 없이는 자신을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또 다시 그들을 만나고 인간 예수

의 구속사역을 알려 주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인간 예수는 인간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이웃의 영적인 위험을 알고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제사를 드렸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너희 모두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요 구원자가 된 예수의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예수는 자신 안에 나를 모시고 있었고 사랑을 통해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 졌다.“

B.D. No. 7031

1958년 2월 2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 졌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는 이 말을 할 권리를 가지고 말했다. 왜냐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준 분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전적으로 채워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 권세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나에게 머물렀다. 왜냐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단지 내 이 땅의 겉형체 만이 인간적인 것이었고 그 안에 거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게 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실제 „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 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 안의 신성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로 여길 수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창조주의 영인 나와 나를 자신 안에 영접한 그 사이에 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권세를 나 외의 어떠한 존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권세가 자체가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이 내 원래의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지 내 뜻 만이 다스림을 이해할 것이고 그러므로 단지 내 위임을 받은 존재만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내 뜻에 저항하는 존재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첫 번째 존재는 나와 함께 다스리고 반면에 두 번째 존재는 다스림을 받아야만 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비록 영원한 내 뜻과 내 권세가 줄어들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항상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대적하는 의지가 한동안 활동하게 놔둔다. 그러나 항상 내 권세에 제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둔다.

왜냐면 유일하게 내 권세 만이 존재하게 보장하고 성장을 보장하고 대적하는 역사를 하는 동안에 완성에 이를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대적하는 역사를 적당한 때에 중단시키지 않으면, 전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즉 나에게 권세가 주어 졌다. 이 사실이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누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는지 너희가 권세가 충분한 보호자와 돕는 자가 필요하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너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전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신성인 무한한 영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를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 없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단지 한분이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사명을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 창조물들을 돌본다. 그는 그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한다.

존재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내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그들의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받는다. 내 사랑과 지혜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인도를 받는다. 끝없이 많은 창조의 작품들을 유지하고 돌보는 일을 맡은 어떤 존재도 절대로 내 뜻에 대항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뜻이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완성에 이른 존재들이고 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내 지혜로 충만한 비추임을 받고 내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항상 내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곳에서 성숙하지 못한 나를 떠난 존재들이 공격하며 실제 나를 대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내 지배 아래 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그들은 내 뜻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왜냐면 단지 한 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단정한 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빛의 존재들과 어두움의 존재들 모두가 이 한 분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권세에는 제한이 없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제한이 없는 상태로 머물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영적인 사명.

B.D. No. 6985

1957년 12월 5일

너희가 인간 예수의 높은 영적인 사명을 깨달으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구세주를 쉬지 않고 거론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비로소 그가 빛나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원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아마도 아직 믿는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인간이 축복을 받는 일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구속사역이 단지 전해졌고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설명 받기 원하면, 비로소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단지 적은 수 될 것이다. 왜냐면 가장 분명한 설명도 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단지 이 땅의 세상을 인정하고 그들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의 사명이 비록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단지 세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사명은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넘겨주고 그에게 사해주기 원하는 죄짐을 진 형제로써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구속받기 원하면, 먼저 이런 구함이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인간 예수의 큰 속죄의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을 죄인이 되게 만든 하나님을 대항한 큰 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역사의 범위와 그들이 한때 가졌던 성품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자신 안에 모실 수 있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이제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원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한 예수의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단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은 죄를 말하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이런 구속사역이 필요하기에는 사람들에게 자주 적게 보이는 죄를 말하면, 예수의 사명에 대한 이런 설명이 사람들에게 이해할만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죄는 사랑에 대항하는 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원죄는 아주 커서 존재 스스로 영원한 기간이 걸린다 할 지라도 이 원죄를 속죄할 수 없다. 이를 이해하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죄는 말할 수 없는 큰 속죄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 속죄를 한 사람이 행했다.

그러나 단지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인 사랑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그로 하여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가 속죄를 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한때 원래 창조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요청했고 이 능력을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긍휼의 역사에 사용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 원죄의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래 상태에 실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른다. 그러나 아주 큰 사랑으로 이 원죄를 사해준 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들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돌아갈 수있기 위해 그에게 다시 의식적으로 향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단지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로 영접하고 활용해야 할 아주 말할 수 없게 큰 은혜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단지 인간 예수에게 향하고 그와 생각으로 대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도울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의 죄를 넘겨받을 것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단지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이렇게 된 원인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그가 한때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내적인 질문은 대답을 받지 못하고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세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 하나님의 구세주를 알려 주는 그의 큰 영적인 사명을 알려주는 모든 지식을 주저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의 모든 일꾼은 항상 더 큰 열심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대적자의 묶임을 받은 존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스스로 그 안에 긴밀한 연결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한다.

아멘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B.D. No. 7250

1959년 1월 8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서 그에게 계시되어 계속되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을 이해한 사람은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왜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혼의 성장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혼이 성장 과정에 불리하게 되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은 아무런 영적인 연결이 없는 영적인 추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고 믿을 만하지 않게 머물 것이다. 영을 추구하는 일은 혼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이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의 생각은 진리보다 오히려 오류에 빠져 있다. 그는 오류를 우선적으로 영접하고 이런 오류를 진리로 여길 것이고 순수한 진리는 그에게 영접할 수 없게 보일 것이다. 왜냐면 바로 그의 영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다. 영의 어둡다는 말을 이성이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 안의 불씨가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영적인 원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된 일은 영적인 원인에서 나온 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은 일어났고 하나님 자신이 한 사람 안에서 자신이 태어나게 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다. 어떤 것도 사람들을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태어난 일도 인간의 법칙 아래 일어났지만 그러나 잉태 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생성되게 하는 일이 가능하는 것을 의심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잉태되지 않고 태어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깨우침을 받은 영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창조된 영의 존재의 자유의지가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영적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런 자유의지가 한때 창조된 원래의 영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역할에 의미가 있고 이 역할이

인간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단지 적은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갖도록 어떤 강요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유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한다. 여기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원래 창조 된 존재로 바꾸고 다시 영적으로 바꾸는 일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한다. 증명해주는 일은 결정하게 강요하는 일이다. 모든 창조 작품의 목적이요 목표인 한때 원래 존재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려면, 어떤 사람도 결정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래 초기의 상태와 목적을 알아야만 하고 창조의 의미와 목적과 창조 안에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식을 절대로 책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자체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에게 전달돼야만 한다. 그러나 전달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지만 단지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취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선행조건이 요구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단지 이런 선행조건이 갖추어 진 곳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요구하는 일이다. 진리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일부분인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에 깨달음의 빛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들을 알려 주게 될 것이고 그는 선명하고 밝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은 놀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그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이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난 영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때와 현재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예수의 삶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생각한 삶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예수의 삶을 들을 것이다. 그의 영이 단지 깨어 있으면,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의 깨어남이 없이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도 흔히 성숙해지는 일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증거로부터 나온 믿음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사람의 이성은 사람 안에 영이 깨어나는 일과 단지 적게 연관이 있다.

영이 깨어나는 일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깊은 비밀을 연구하는 일은 이성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특권이다. 이 계명을 성취하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예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효과이다.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사람들을 모든 지혜 안으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 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겉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 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관점.

B.D. No. 7024

1958년 1월 24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희가 이 땅의 삶에 성공할지 결정적인 요소이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 졌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마치면, 그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면, 아무것도 이를 수 없고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원죄로부터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 들어 갈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 먼저 죄 사함과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마지막으로 가서 너희 혼이 육신을 입을 당시와 같은 상태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았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간에 전적으로 무의미 함을 생각하면, 너희는 스스로 인생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가 사후에도 지속되는 삶을 도무지 믿으면, 너희는 사후의 삶을 아름답게 구성하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 이로써 항상 또 다시 그들의 생각이 자극을 받는 기회가 예수에 대한 관점을 정하려고 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가 아주 지극히 작은 준비된 자세를 가질 지라도 주님 자신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고 그가 주님을 믿는 일을 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자유의지가 주어진다. 그가 구속받기 위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은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단지 짧은

시간이고 혼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이로써 죽음의 때에 빛의 영으로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의식적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길을 갔다. 왜냐면 그에게 육신을 입기 전에 그의 인생의 과정과 목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제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모든 혼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했었고.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해 물질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소원을 이루는 최종적인 기회를 제공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을 입을 때 그들에게서 이 지식은 다시 거두어 졌다. 그러므로 모든 혼이 구속사역을 통해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원죄를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역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줘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들이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지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통해 그리고 모든 큰 원죄를 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문을 통해 빛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통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문은 닫혀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를 절대로 자유롭게 놔두지 않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B.D. No. 7066

1958년 3월 14일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긍휼의 역사를 믿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를 통해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세상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 나 자신에게 합당한 곁형체가 되어 나를 전적으로 모두 자신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용서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 예수는 영원한 너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너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 부족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 이름 안에 모여야 하고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한 그러므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한때 너희를 위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해준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이 길을 통해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너희 혼이 이제 비로소 전에 가졌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도움을 줘야만 하고 도움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필요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헤아려 보거나 또는 증명하기 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주변을 관찰하고 창조물에 대해 창조물의 생성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구속사역의 의미를 먼저 체험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빛의 나라의 문이 열려진 시대가 되었고 전적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이 첫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많은 혼들이 축복의 문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많은 혼들이 이제 비로소 축복된 영의 존재로써 그들이 원래 초기에 생성되어 나온 곳에 거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원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문이다. 그의 이름이 빛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진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고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로써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에게 너희 안건을 아뢰면, 너희는 잘못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짓누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사랑이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항상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비로소 자유의지로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너희는 비로소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비로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들어선다. 왜냐면 이 길 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B.D. No. 6958

1957년 10월 31일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빛을 밝혀 주고 길을 밝혀 줄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일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동행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동행을 받게 재촉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나에게 속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의 길에 동행자로서 항상 너희와 함께 가주기를 나에게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갈 수 없다. 내 편에서 진실로 너희가 높은 곳의 나에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너희 자신이 올바르게 생각한대로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내 편에서 주는 모든 지식이나 경고의 말에 자신을 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하는 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강요할 수 있다. 너희는 올바르게 너희에게 저항을 한다고 믿는 곳에서 너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영원한 구원계획은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얻는 일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마지막 목표로 도달하기 원하는 것을 단지 존재의 자유의지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이 목표를 쉬지 않고 추구할 것이다. 내 사랑은 영적인 존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어 존재가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수단을 찾을 것이다. 사랑은 많은 것에 도달한다.

사랑하는 존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은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존재가 아직 내 대적자에게 향해 있으면, 이에 대항해 관철시키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존중을 받고 단지 이 의지를 얻으려고 쉬지 않고 노력한다. 또는 항상 또 다시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즉 빛을 밝혀 준다.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위로부터 온 빛으로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눈앞에 보게 하는 내 말을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세주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의 관점이 한번 이런 밝은 길로 향하면, 그가 이 길을 갈지 십자가를 추구할지를 의지가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스스로 가야만 한다. 길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는 일은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단지 내 말을 알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아는 일로는 소용이 없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실천한 것처럼 내 말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 사람들에게 밝은 빛 가운데 보여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어떤 길을 가는 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결실을 통해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올바

른 인도가 없이 갈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이 길은 피할 수 없이 깊은 곳으로 내 사랑이 이미 그를 끌어올렸던, 그가 걸어왔던 길로 다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그는 나에게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그는 언젠가 그가 밝은 빛 가운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관찰해야만 한다. 그가 이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함을 그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를 보면, 놀라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는 항상 단지 이 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그가 이 길에 들어서기 원하면, 그는 나에게 능력을 구해야만 하고 자신을 내 인도에 맡겨야만 한다.

그는 진실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를 항상 모든 위험한 절벽을 지나게 인도하고 그가 모든 장애물을 쉽게 극복하게 인도하고 애를 쓰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항상 능력을 제공해 길이 그에게 가파르게 보일지라도 피곤해질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혼자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혼자라면, 그를 아주 빠르고 쉽게 다시 올바른 길을 벗어 나서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다른 자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이 항상 그를 뒤따를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어떠한 내 피조물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B.D. No. 7096

1958년 4월 18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이 언젠가 너희 모두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가 아직 끝없는 고통과 어둠 가운데 전적으로 빛과 능력이 없는 상태인 죽음 가운데 영원한 기간 동안을 보낼 수 있다. 너희는 이런 고통이 가득한 기간을 끝 없이 연장시킬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자신에게 만드려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 존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만드려내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멸망 받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원래 초기부터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음의 상태를 선호하면, 너희 자신이 내 손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때가 되기 전에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단지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생명인 분에게 너희 자신을 의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과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단지 원하기만 하면 되는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땅의 기간은 아주 짧다. 너희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너희에게 선물 되어지는 것을 위해 너희에게 큰 희생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사는 기간은 아주 짧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의 단계 도달할 수 있기까지 이 전에 너희의 성장 과정은 끝 없이 긴 기간이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너희의 의

지에 결정을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까지 끝 없이 긴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너희 사람들이 이 기간의 길이를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원한 기간이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이전의 성장 과정의 기간에 대한 기억을 너희가 빼앗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통이 어떠한 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을 결단하면, 너희는 내 나라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어야 하고 이제 이 믿음에 합당하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내 나라의 축복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비록 너희에게 믿을 수 없게 보일지라도 너희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너희 이성의 생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물질적인 세상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일에 관해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이에 관해 생각하고 그의 말이 옳으면, 너희가 어떻게 실제 합격할지 상상해봐야 한다.

너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이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처럼 몇 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최고로 축복된 상태에 너희가 원래 초기에 가졌던 빛과 능력의 상태에 관한 문제이다. 빛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기간을 위해 너희는 전적으로 가치없는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 단지 아주 짧은 영원에 비할 때 눈 깜짝할 사이인 시간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가치가 없는 것들에 특별하게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잃고 다시 영원한 기간 동안 죽은 가운데 머문다. 너희가 생명으로 도달할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계속하여 너희에게 내 일꾼을 보내 일꾼들이 내 사명을 받아 너희에게 경고하고 권면해주면서 너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하게 자극해주는 일이다.

진리는 너희에게 유일한 진리인 너희의 생각을 밝혀주는 나를 알려준다. 진리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나에게 이끌 수 있게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루라는 조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첫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축복을 위해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원하고 나에게 향하려는 가장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창조물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살고 너희의 이미 영원히 지속 된 죽음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사랑을 너희에게 다시 베풀기 원하고 너희 모두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광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너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너희를 죽음에 도달하게 한 자를 다시 자유의지로 따르면, 너희가 다시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면, 나는 너희를 막을 수 없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로 이런 내 부름을 따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생명을 얻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아멘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B.D. No. 7055

1958년 3월 4일

너희가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 너희는 이 가운데 너희에게 이미 오래전 에 예고 된 대로 세상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너희는 이 가운데 가까운 종말의 징조를 봐야 한다. 너희 영이 깨어났다면, 너희는 너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 알 것이다. 내가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랑은 식게 될 것이다. 죄의 홍수 전의 때처럼 될 것이다: 높아진 삶의 쾌락, 죄악성, 불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가운데 특별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단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종말이 가까이 오면, 징조를 통해 종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이 실제 이미 이런 때를 많이 체험했다는 항변을 그리고 예고한 일을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항변을 제기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믿음 없음과 저주받을 만한 행위를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알려준 이 땅의 마지막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돼야만 한다는 한가지를 잊고 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이 일을 단지 사람들에게 의해 아직 전달되지 못한 곳으로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는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 이렇게 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이 지식이 전달되게 돌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 나는 내 영을 통해 단지 내적으로 동인이 되어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이런 직접 행하는 역사는 거대한 크기로 일어나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미 오래전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할 것이다.

복음이 이 전에 전파돼야만 한다.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복음은 바로 마지막 때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제 내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그에게 내 영을 부어줄 수 있기에 합당한 내 그릇이 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육신을 입은 내 빛의 일꾼을 통해 모든 곳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들은 나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연결시킬 것이다.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가 단지 유일하게 사람에게 달려 있으면,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내 영이 역사할 수 없는 곳에서 이로써 이 전에 내 직접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영이 깨어나지 못한 곳에서 사람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나 자신이 내 피조물들을 돕기 위해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임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역사는 아직 어느때에도 이런 크기로 일어난 적이 없다. 만약에 나 자신이 나에게 합당한 그릇에 내 영을 채워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역사가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가 항상 빛을 꺼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나 때가 아직 대적자가 특별하게 분노하는 그러므로 나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하게 역사하는 종말의 때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사랑이 설교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영적 깨어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지라도 단지 선포자를 통해가 아니라 내 사랑과 빛의 일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어떤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도우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들 가운데 내 영으로 충만한 선생님을 모시게 될 것이다. 이 선생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지식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선생님을 통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권면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자신의 내면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 때가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영적인 위험과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임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쉽게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내가 예고한 일이 언젠가 성취될 것이다. 언젠가 추수하기에 알맞게 성장할 것이다. 소출은 창고로 옮겨야만 한다. 그러므로 언젠가 정화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옛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만 한다. 이 땅이 다시 이 땅의 실제 목적인 사람들의 혼이 성장하게 만드는 일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당하는 위험.

B.D. No. 6969

1957년 11월 15일

종말의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항상 더욱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대적자의 역사는 유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향해 있다.

왜냐하면 혼들이 구세주를 부르면, 대적자가 이런 혼들에 대한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자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항상 또 다시 모든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적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아는 지식을 막기 위한 모든 일이 행해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 일은 실제 전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또 다시 자신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적자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불행을 일으킬 것이다. 대적자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꺼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적게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쉬운 일이다. 왜냐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곳에 대적자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패배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대적자에게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순수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다. 그는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을 벗어난다. 왜냐면 사람들 타락시키기 위해 그가 사람의 자유의지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방해받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금지할 권한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두 명의 대적자가 서로 싸우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 권세나 또는 다른 권세를 결정해야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세력과 그들의 성품과 역사와 그들의 목표를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운 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는 더 이상 그의 악한 행동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복종해야만 하는 그보다 더 강한 분이 그의 역사를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권세의 영역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아주 특별하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과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로써 그들은 대적자의 역사에 대항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수의 손에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 떨기를 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한 분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왜냐면 대적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사람들을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원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모든 권세로 여기는 추종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 세상의 상태는 희망이 없는 상태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아직 생명력이 있게 믿는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에게 크리스천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 단지 영과 생명이 없는 죽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생명력이 있는 관계성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것인지 또는 대적할 것인지 진지한 결정에 관한 일이라면, 대적자의 희생자가 된다.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요구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공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 앞에 그들의 구원자요 구세주 앞에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고백해야만 한다.

그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견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마지막 결정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들 모두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을 영접하고 실천했으면, 그들의 믿음이 깨어나게 되거나 또는 강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나 이 의지는 의지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아멘